

소비자 90.7%, “신선농산물 온라인 구매 경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오픈마켓·소셜 커머스’ 연령대 낮을수록 온라인 종합 쇼핑몰·대형마트 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첫 온라인 식품 구매자가 늘면서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자들의 인터넷 소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농업인들은 온라인 판매의 전문성과 중요성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온라인 소비자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가의 소비자 패널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농식품 구매자 중 가정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며, 지역, 연령 비율을 반영한 할당표집법에 의해 표본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열린 시장(오픈마켓)’ 및 공동 할인 구매(소셜 커머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오픈마켓 및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온라인 신선 농산물 지출은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61.7%였으며, 변화 없다는 24.3%였다.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다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및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의 배송 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잘 관리되는 항목으로 꼽았다.

반면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 40~60대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또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경험 만족도 분석 결과는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는 낮게 평가(3.69점)됐다.

조사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과일 채소를 자주 구매하게 됐다”며 “주말엔 농산물을 당일 배송으로 문 앞에서 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촌환경지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우석대-중기중앙회 전북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협력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종석 LINC+사업단장과 전의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실용 인재양성을 위한 표준 현장실용과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및 취·창업 교육 운영에 전북 소재 중소기업이 동참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교육부의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산업분야 중심 융·복합형 교육과정 확충 및 취업연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석 LINC+사업단장은 “산학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과 표준 현장실용이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취·창업으로 연계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전의준 본부장은 “도내 소재 2,000여 중소기업과 우석대학교 학생들이 표준 현장실용과 기업연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전 차단

전북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원장 김민욱)은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와 관리기관, 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

공급대상자 대상 점검 내용은, 배정 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면세유류를 배정받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와 카드 부정 발급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업소는 농업인과 결탁하여 부정 공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민욱 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로 무방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신고 전화(1588-8112)로 연락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5일 농협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핵심 사업 역량 집중

전북농협, 올 종합업적평가 추진계획 보고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25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과 전북농협 핵심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전

북농협의 역할과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핵심사업, 지역농업발전사업, 고품질방기부채 도입 준비, 농촌인력 확대, 임직원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재난, 일손부족 등으로

농업·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협 비전 2025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과 농업, 농촌, 농업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국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최대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2022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반부패 서밋(BIS) 우수기관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5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ociety Summit)'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UNGC의 반부패 우수기관은 UNGC 한국협회 28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사법 평가 및 청렴도 평가, 정부 경영평가, 윤리경영 국제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날 공단은 ▲6년 연속 부패방지 사책평가 최고등급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해마다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 등에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반부패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반부패 어워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민간분야에 청렴문화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2월 전북 수출 증가율 41.8%

국내 전체 수출 증가율인 20.6% 상회... 국내 총 수출의 1.26%

2022년 2월 기준 전라북도 수출 증가율(41.8%)은 군산시의 높은 증가율(82억 2,807만, 98.5%)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20.6%)을 상회했지만, 국내 총 수출의 1.26%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도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해, 타지역과 달리 일자리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2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8%가 증가한 6억8,022만 달러, 수입은 30.0%가 증가한 5억2,684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5,33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2월 휴일 등을 고려한 조업일수는 20일로 일평균 수출액은 약 3,400만 불을 기록해 전년 동월 일평균 수출액인 2,400만불보다 3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합성수지, 자동차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정밀화학원료(8,347만, 90.2%)는 최근 동물사료용 아미노산(라이신)과 각종 화학원료의 수출 증가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동제품(8,321만, 47.3%)의 경우 중국과 헝가리 등으로의 수출이 각각 125%, 74%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합성수지(8,061만, 18.6%)는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4위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95.4%가 증가한 5,197만 불을 기록했는데 베트남(\$1,890만, 167.0%), 러시아(\$800만, 314.1%), 칠레(\$416만, 368.4%)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중국(\$1억 4,401만, 52.7%), 미국(\$9,230만, -1.9%), 베트남(\$5,299만, 84.6%), 일본(\$4,277만, 32.7%), 이탈리아(\$2,757만, 545.5%), 러시아(\$2,109만, 294.1%) 순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최대 품목은 중국은 동제품(\$3,291만, 125.7%), 미국은 농기계(\$2,907만, 2.9%), 베트남은 자동차(\$1,890만, 167.0%), 일본은 정밀화학원료(\$843만, 170.7%), 이탈리아는 알루미늄(\$2,252만, 3,504.2%), 러시아는 자동차(\$800만, 314.1%)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전북 수출에서 러시아 수출이 급증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영향이 반영되기 전이므로 향후 변동성을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조합과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 협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군산지방청, 합안군산림조합이 목재저장센터와 목재집하장의 지원 및 정보, 관련 기술 등을 적극 활용, 산지 목재유통 체계개선 및 구조화를 통해 목공방 등 민간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유통체계 개선 및 구조화 협력, 유용활용수 수집·매각 등 지역 소규모 목공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협력, 국산 목재 이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공동추진, 목재유통사업 및 선진임업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청군 산림조합, 합안군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목재 수요 발굴 및 산지 목재유통체계개선을 통해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목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저장능력을 확보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은행, JB플랫폼서 ‘부모화 함께하는 디지털 금융체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4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 금융에듀테인먼트인 ‘JB 플랫폼’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디지털 금융체합을 진행했다.

이번 금융체합이 진행된 ‘JB플랫폼’은 국내 은행권에서 최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금융에듀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교육을 놀이와 결합시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고 다양한 금융체합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체험은 개별 신청으로 모집된 도내 초·중·고생 9명과 학부모 동반으로 진행했으며, 프로그램 진행은 제이비 판타지, 체크인, 뱅크월 플랫폼, 제이비 뱅크 앱 플랫폼, 파인애플 큐브, 글로벌 커리어 맵, 메타버스 월드 마스터 홀, 제이비 굿즈 스토어, 도내이전 트리 등을 체험했다.

한편 JB플랫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일 2팀, 1팀당 15명씩(최대 30명) 운영된다. /최대희 기자

중년층 재취업 지원 ‘신중년취업 희망더하기’ 참여자 모집

전북도도와 전북일자리센터는 도내 만 40세~63세 신중년층 미취업 구직자 대상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미취업 신중년층의 취업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공적인 재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업은 단계별로 원스톱 맞춤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일선 및 컨설팅 ▲구직활동비 지원 ▲재직자 정착교육, 취업 성공경험 지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서류 및 면접전형의 취업준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으로 취업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대상으로 취업·일선과 실증컨설팅 등 실천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어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단계로 5주 동안 총 10회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증명서류 제출 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

에 대한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 유도 목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취업한 신중년에게 직장생활 조기적응 및 심리안정을 위한 재직자 정착교육과 안정적 근무를 위해 3개월 근무 시 성공적착지지원금 30만원과 생생 생활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총 70명으로 신청 및 접수순으로 모집완료시까지 전라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